이태경전의 構成과 空間設定 技法

辛 泰 洙*

〈차 례〉

1. 問題 提起
2. 構成의 特徵
3. 三國에 걸친 空間擴大와 主人公의 삶
4. 空間擴大의 小說史的 意義
5. 結 論

1. 問題 提起

이태경전은 이태경이라는 허구적 인물의 기구한 일생을 다룬 소설이다. 주인공인 이태경은 누대 명문거족의 후손으로 文才가 탁월하다. 명문거족이고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면 출세가도를 달릴 법한데, 혹심한 당파에 시달리다 못해 종살이의 길을 택하므로 뜻밖이다. 주인공의 신분은 높되 계층은 한없이 낮으니, 일단 하층영웅소설의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다. 이태경전이 하층영웅소설의 특징만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주인공이 본의 아니게 오랫동안 명과 가달에 끌려 다니므로, 주체적으로 공간을 이동하는 하층영웅소설의 주인공과는 분명히 다르다. 기존의 하층영웅소설과 다른 점이 이태경전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몫이다.

현전 이본은 필사본 7종, 활자본 1종으로 모두 8종이다.[1] 창작 연대는 미상이나 20세기 이전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우선 목판본이 없다

* 경북대학교 강사

1) * 필사본: 박순호 교수 소장본 —— 이태경전,173쪽
김동욱 교수 소장본 -— 李司馬孝忠錄,133쪽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는 점에서 그렇고 필사본의 표기형태[2]나 필사기를 보더라도 또한 그렇다. 무엇보다 신빙성 있는 증거는 작품의 내용이다. 주인공의 文才가 탁월하다고 해놓고 文才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곡을 다양하게 설정한 바, 사회적 궁핍이라든가 국제 간의 외교정책이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질곡이다. 사회적 궁핍을 다룬 대목은 이해룡전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할 정도로 흡사한데, 이해룡전이 인기를 얻고 널리 전승되자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 간의 외교정책을 다룬 대목은 여타 소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태경전에서는 이런 영역을 개척해서 작품 구성의 축으로 삼았다. 이해룡전의 내용을 수용하는 한편 과감하게 소재 개발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태경전은 아마도 20세기에 들어서서 창작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태경전은 짧은 기간 동안에 널리 퍼져나간 작품이다. 창작시기를 20세기 초로 잡더라도 필사본에서 활자본이 되어 나오기까지는 불과 20년 안팎이다. 이처럼 인기를 누린 요인이 무엇인가? 작품 자체에서 인기를 끌만한 요인을 찾아보면 세 가지 정도가 된다. 첫째, 이태경전은 기존 소설의 여러 유형을 한 자리에 모아놓았다고 할 정도로 구성이 특이하다. 혹심한 궁핍, 남녀 이합, 二代에 걸친 家族史, 국제 간의 전란 등이 종횡으로 얽혀 있어서, 이태경전만 보면 이른바 社會小說, 愛情小說, 家門小說, 英雄小說을 한꺼번에 조망하는 기분을 맛볼 수 있을 법하다. 둘째, 이태경전의 전체 내용이 민담의 '아들 많이 둘 사람 잘 되어 돌아오기' 유형[3]과 흡사하다. 이태경전이 오랜 세월동안 인구에 회자된 민담 유형을 모태로 했을 법한데, 이런 민담 유형에 익숙한 독자라면 이태경전에 쉽사리 빠져들 것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도서관 소장본 — 니틱경전,156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도서관 소장본 — 이틱경전,118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도서관 소장본 — 이틱경전,88쪽.
필자 소장본 — 니틱경전,117쪽.
필자소장본 — 진ㅅ 이히룡전,145쪽.

* 활자본: 李泰景傳 — 匯東書館版,1926년.
필자소장본인 '진ㅅ 이히룡전'을 이태경전의 이본으로 포함시킨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전반부는 이해룡전의 내용 그대로이나, 후반부는 이태경전의 내용 그대로이다. 2.4에서 밝혀지겠지만 이태경전은 원래 이해룡을 수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전반부가 이해룡전의 내용 그대로라 해서 문제될 수 없다. 제목에 구애 받지 말고 이태경전의 이본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2) 서울을 경성이라 한다든지 분철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든지 하는 현상이 어느 이본에서나 나타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셋째, 공간 배경의 확대이다. 여타 소설과는 달리 조선과 명 그리고 가달 삼국의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지리적 공간에 관심을 갖는 독자를 끌어당기기에 충분하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요하는 것은 공간 배경의 확대이다. 주인공의 활동 무대가 조선과 중국에 걸쳐 있는 경우는 드물지 않으나, 삼국으로 확대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가령 이린전, 장인걸전, 신유복전 등에서 조선, 중국, 오랑캐 간의 삼국관계를 다루고 있기는 해도, 공간을 삼국으로 확대한 것은 아니다. 작품에 따라 방향은 다를지언정 오랑캐가 중원을 침범하고 조선의 주인공이 중원에 출정하는 것을 기본 틀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시되는 배경은 조선과 중국뿐이다. 이태경전에서는 조선, 중국, 가달 간의 삼국관계를 다루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삼국에다 공간을 고루 배분하고 있으니, 그 이전의 소설과 엄연히 구별된다. 三國을 배경으로 한다면 二國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삼국을 고루 끌어들일 만한 계기를 설정해야 하고 주인공과 공간과의 관계도 걸맞게 설정해야 한다. 이태경전이 이런 요건을 어느 정도나 갖추고 있으며, 소설사에서 지니는 의의가 무엇인지가 관심거리이다.

필자는 바로 이런 점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작품론을 전개하려 한다. 이태경전이 전대 하층영웅소설의 어떤 면을 받아들이고 어떤 면을 새롭게 창안했는지를 알기 위해 구성을 먼저 살피고, 이를 단서로 하여 공간과 인물의 관계를 검토한 다음 소설사적 의의를 조망하는 순으로 진행한다. 현전 이본이 8종이지만 이본 간에 주제가 달라질 정도로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상기의 관심사를 해결하는 데는 어느 이본을 택하든 관계가 없으니, 필자가 소장한 117쪽본을 주자료로 하고 여타 이본은 필요에 따라 거론하기로 한다. 기존에는 공간확대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핀 예가 없으므로, 본고는 공간확대 양상을 보이는 소설 연구에 지침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3) 여러 설화집을 보면, 자식 많이 둔 사람이 자식을 더 낳지 않기 위해 먼 길을 났으나 예기치 않은 일로 자식을 많이 두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여러 부인을 얻고 부인들의 도움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다는 내용의 설화가 수십 편에 이른다. 『韓國口碑文學大系』,別冊附錄(1)(韓國精神文化硏究院,1989),628쪽에서 이런 설화의 유형을 '아들 많이 둘 사람 잘 되어 돌아오기'라 한 바, 필자는 이 유형 명칭을 따르고자 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2. 構成의 特徵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작품의 줄거리를 먼저 제시하기로 한다. 사건의 시작과 끝을 단위로 하여 단락이라 칭하고, 각 단락에 일련번호를 붙인다.

1) 이태경은 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으나 조실상부하고 편모슬하가 됨.
2) 집이 워낙 곤궁하여 노모에게 효성을 다하지 못하던 중 노모가 득병 사망함.
3) 장례 비용이 없어 부인 심씨가 오흥 대감집에 종으로 들어가고 그 돈으로 장례를 치름.
4) 오흥 대감이 심씨를 사랑하니 오대감 부인이 투기하여 힘든 일을 골라 시킴.
5) 노비 춘남이 전후 사정을 듣고 이태경의 편지를 받아 심씨에게 전해 줌.
6) 심씨와 춘남의 대화 내용을 들은 老婢가 자초지종을 오대감집에 전함.
7) 오대감이 이태경 부부의 지극한 효행을 칭송하고 나라에 아뢰니, 임금은 이태경에게 금산군수를 제수함.
8)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한림학사를 제수받고 부귀영화를 누림.
9) 중국 사신 김광녹이 이태경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明에 데려가려 함.
10) 강권에 못이겨 明에 들어갔으나 김광녹의 제지로 귀국하지 못함.
11) 김광녹이 가달 정상서의 요청을 받고 이태경을 가달로 보냄.
12) 가달에 도달하자 정상서가 즉시 후미진 곳집에 감금해 버림.
13) 고국을 그리워하며 퉁소를 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정소저와 佳緣을 맺음.
14) 정소저의 도움을 받아 고국을 향해 도망감.
15) 明의 국경을 지나다 죽어가는 한대장을 살려주고 도리어 억류되어, 그 여식인 소저와 혼인을 함.
16) 한대장이 귀국시키지 않아 본의 아니게 8년을 살고 슬하에 능과 준을 둠.
17) 한편 조선의 심씨는 이태경이 명에 들어간지 얼마되지 않아 유복자인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연을 낳았고, 연은 장성하여 오대감의 딸을 아내로 맞이함.
18) 이연은 알성과에 급제하여 병조판서를 제수받음.
19) 이태경은 한소저의 도움으로 간신히 고국으로 도망함.
20) 조선에 당도했으나 곧 바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수일동안 주막에서 유숙하며 자기집의 동정을 살핌.
21) 심씨에게 시험을 받은 연후에 비로소 이태경으로 인정받고 가정에 복귀함.
22) 임금으로부터 좌의정을 제수받고 명망이 조선에 가득함.
23) 가달이 강성하여 명을 침략하니 명은 조선에 원병군을 청함.
24) 조선 임금이 이연에게 삼만 군병을 주고 원병장으로 가게 함.
25) 이연이 명에 들어가자 이능과 이준이 부친 소식을 듣기 위해 진중을 찾아왔고, 이로써 삼형제 상봉이 이루어짐.
26) 가달의 장수는 정소저의 유복 쌍둥이인데, 이들이 부친의 소식을 알고 싶다며 진중으로 찾아왔고, 이로써 오형제 상봉이 이루어짐.
27) 전투가 벌어지자 밀계에 따라 가달 두 장수가 짐짓 패배하고 물러남.
28) 명의 한씨가 이연을 찾아와 반기며 이태경에게 전할 편지를 줌.
29) 이연은 형제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고 조선으로 돌아옴.
30) 명과 가달이 화친을 맺자 이능과 이준이 가달로 들어가 부인 정씨를 만남.
31) 조선에서 왕자가 탄생하니, 천자가 이준을 축하 사절로 파견하여 부친을 만나게 함.
32) 이때 가달의 두 아들도 축하사절로 조선에 파견되니 부자 상봉, 형제 상봉이 이루어짐.
33) 가달에 돌아온 두 아들이 충렬각을 짓고 이태경의 화상을 봉안함.

정리한 바를 보니, 이태경은 여러 차례 인생의 고난을 겪는다. 모친의 초종치례를 못해 아내까지 종으로 팔아야 했고, 간신히 이를 해결하고 나니 문제가 새롭게 발생한다. 본의 아니게 김광녹을 따라 명으로 들어가야 했고, 정상서를 따라 가달로 가야 했다. 천신만고 끝에 고국에 돌아왔지만 고난이 종결되지 않았다. 명과 가달의 전쟁에 長子 이연이 원병장으로 떠나게 됨으로써 또 다시 家族 離散의 비운을 맞이한다. 이렇게 본다면 이태경은 아내를 종으로 내어 보내고, 명에 인질로 끌려가고, 뒤이어 가달에 인질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로 끌려가고, 아들을 전장으로 보내야 했으니, 모두 네 차례의 고난을 당한 셈이다. 그렇다고 시종 암담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예기치 않은 행운이 도래했고, 이로써 고난을 벗어날 수 있었다. 네 차례의 고난을 순서에 따라 제1차 고난, 제2차 고난, 제3차 고난, 제4차 고난이라 칭하고, 고난의 발생요인과 해소요인을 따진 뒤 구성의 특징을 논하기로 한다.

제1차 고난은 궁핍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태경은 문재가 탁월하여 일찌기 진사가 되었으나 도무지 가난을 면할 수 없다. 원래부터 가난한 것은 아니었다. "가산을 탕피ᄒᆞ야 노비곡속이 산지사방"(1쪽)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노모 봉양이 어렵게 되자, 뒤늦게서야 이태경은 남산에 올라가서 밭을 갈고 부인 심씨는 길쌈 방적을 하지만 노모 봉양은커녕 끼니 잇기도 어렵다. 급기야 노모가 棄世했고, 초종치례할 돈조차 없는 부부는 시신을 앞에 놓고 통곡만 할 뿐이다. 이 때 부친이 현몽하여 오흥 대감을 찾아가라고 계시하고 부부는 오대감을 찾아가 종이 되기를 자청한다. 이렇게 해서 돈 50금을 받고 종살이를 하게 된 바, 양반신분이라도 궁핍하면 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이 정도로 몰락했다면 다시 일어서기는 어렵다고 하겠는데, 이태경 부부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오대감이 심씨에게 "쳔비"(13쪽)라 하고 그들 스스로 "노쥬지분은 유뷰유자"(14쪽)라 하니, 자타가 공히 노비로 여긴다고 하겠다.

이런 고난은 오흥 대감이 이태경 부부의 사연을 안 뒤 쉽게 풀린다. 오대감이 이태경 부부가 지극한 효성을 지녔다고 임금에게 아뢰자, 임금이 이만저만 감동하는 것이 아니다. 용루를 흘리며 중신들에게 지효를 본받으라고 하고, 은자 삼천 량을 하사하기도 한다. 삼년 상이 끝나기를 기다려 금산군수를 제수하기까지 했다. 임금이 이태경에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부모 셤기던 효성으로 짐을 츙셩으로 도우라"(36쪽)라는 傳敎에서 보듯, 孝를 忠으로 유도하고 困厄을 위무함으로써 王化를 과시하기 위함이다. 임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태평과를 개설[4]하고 今世가 태평성대임을 공포하고자 한다. 이태경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 뛰어난 문재를 유감없이 발휘했고, 단번에 한림학사의 자리에 오른다. 반대 세력이 없고 임금의 신임이 두터우니, 앞으로의 영달은 기약되어 있다. 도무지 풀릴 것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같지 않던 고난은 이로써 해결되었는데, 충효를 통치이념으로 삼는 시대에 효야말로 다른 어떤 수단보다 더 큰 위력이 있다.

제2차 고난은 중국사신 김광녹으로 인해 발생한다. 김광녹은 천문지리에 능통한 자인데, 조선에 인재가 있음을 알고 임금에게 한번 보여달라고 조른다. 임금은 이태경을 제외한 여러 조신을 선보이지만, 김광녹은 모두 인재가 아니라며 이태경을 바로 짚어낸다. 이태경을 대면한 김광녹은 대뜸 중국에 데려가서 높은 벼슬을 시키겠다고 한다. "ᄒᆞ날이 이 인ᄌᆡ를 ᄂᆡ실졔 ᄃᆡ국을 위ᄒᆞ야 ᄂᆡ신 ᄇᆡ"(43쪽)니 중국에 데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천자의 명을 들먹이며 우기므로, 임금도 보낼 수밖에 없다. 막상 중국에 당도하자 김광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낮은 벼슬조차 주지 않고 관청의 방 쓸기, 화로에 불 지피기만을 강요할 뿐이다. 이태경이 수심에 겨워 들어눕는 경우가 많아지자, 우연히 사냥길에서 만난 가달의 정상서에게 인계해 버린다. 가달의 정상서 또한 이태경을 데려갈 때는 높은 벼슬을 약속했지만, 그 역시 김광녹과 마찬가지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가달에 이르자 마자 곳집에 감금하기에 바쁘니, 이태경은 그야말로 "그물에 든 툇기요 우물의 든 고기"(54쪽) 신세이다.[5]

이런 고난은 정상서의 딸에 의해 예기치 않게 풀린다. 곳집 안에서 향수를 달래느라 퉁소를 부니, 누군가가 거문고로 화답한다. 거문고 소리의 주인공은 정상서의 딸이다. 정소저는 청춘과부로 친정에서 무료히 세월을 보내던 차, 퉁소 소리의 애절함에 매료되어 거문고로 화답하고 창고에 갇힌 이태경을 풀어주기에 이른다. 퉁소와 거문고의 화답은 술잔을 나누는 단계로 발전하고, 이어서 운우의 정을 나누는 단계로까지 발전한다. 꿈같은 생활이 어느 정도 흐르자 이태경은 또 다시 고국 생각에 빠지게 되는데, 하느니 탄식이요 짓느니 눈물이다. 이태경의 거동이 달라지자 정소저가 연유를 캐묻고, 이태경은 자초지종을 밝힌다. 여기서 정소저의 마음가짐이 참으로 중요하다. 곳집에서 구출해 낸 장본인이 정소저이므로, 곳집에 다시 돌려보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소저는 비통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태

4) 科試 題目이 "ᄆᆡ신장기모"(39쪽)라 한다. 몸을 팔아 그 어미를 장사지낸다는 뜻이므로, 자식의 도리에 대해 논술하는 문제라고 하겠다. 효를 試題로 내거는 것은 효가 곧 충의 단초임을 확인하고, 충을 강조하는 답안을 요구하기 위함일 터이다.

5) "촉인겨 잡펀 ᄇᆡ 되"(68쪽)었다는 말에서 보듯, 이태경 스스로도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경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길을 열어주는데, 이는 뜻밖이다. 타국에 영영 억류될 뻔한 처지에서 정상서의 딸을 만난 것은 이만저만한 행운이 아니다.

제3차 고난은 明의 한대장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태경이 여러 날만에 명의 접경지역에 당도했을 때 飢寒으로 죽어가는 노인을 발견했고, 환약과 음식으로 살려냈다. 이 노인은 성이 한씨로서 어영대장을 지낸 바 있는데, 고대광실에서 살고 시종이 많은 것으로 보아 위세 당당한 실력자이다. 이런 한대장이 은공을 갚는다며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고, 이태경은 고국행을 잠시 미루고 따라간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귀한 손님이라며 객실에 들여놓고는 밤낮으로 군사를 풀어 삼엄하게 지키니, 귀국은 커녕 마음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다. 기거한 곳이 곳집이 아니고 고대광실이기는 하나, 곳집에 갇힌 것이나 진 배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한대장은 자신의 딸과 이태경을 혼인시키려 한다. 만약 한소저와 혼인을 하게 되면 쉽게 돌아갈 수 없음은 자명해진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렀지만, 한대장에게 압도되어 한 마디 말도 꺼내지 못한다. 제2차 고난 못지 않은 고난이 시작된 셈이다.

이런 고난은 한소저로 인해 예기치 않게 풀린다. 한소저는 "요조숙녀"(74쪽)인데다 마음씨가 고와 이태경에게 온갖 정성을 다한다. 결혼 재미에 빠져 고국을 잊고 산지 삼 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자식도 둘이나 낳는다. 큰 아들은 능이요 작은 아들은 준인데, 이태경을 닮아 영웅호걸의 기상을 지녔다. 한소저는 앞으로 "쳔지 길락이 무궁ᄒᆞ"(75쪽)다고 생각하며 즐거워할 때, 이태경은 또 다시 고국 생각에 젖어든다. 향수병이 재발하기만 하면 한탄하고 눈물짓는 것이 전부이니만큼 한소저가 모를 리 없다. 남편의 마음을 간파한 한소저는 부친 몰래 탈출계획을 도모한다. 밤이 깊어지자 준족의 나귀를 대령하고 먼 여로에 쓰일 음식과 환약을 건네주며, 달아날 길을 열어준다. 이별하고 돌아서는 이태경에게 "원쳔의 쏘각 구름은 눈섭우의 수심이요 장강의 일ᄃᆡ수난 안젼의 눈물"(77쪽)이지만, 마음과는 달리 고국으로 둘아가는 발걸음은 무척이나 가볍다.

제4차 고난은 동아시아의 전란으로 인해 발생한다. 어렵게 고국에 돌아와 아내 심씨와 유복자인 연과 동락하는데, 명에서 원병 요청이 오면서 반전되고 만다. 조선으로서는 명의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니 가달과의 싸움은 불가피하고 전란의 판도는 동아시아로 넓어졌다. 비록 전장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이 중원이어서 조선 백성이 피를 흘리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그 파장은 결코 적지가 않다. 원병군에 배속된 조선 군사와 그와 관련된 가족은 어김없는 피해자이고, 이 점에서 이태경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바로 이태경의 아들 연이 원병장으로 출정하게 된 것이다. 가족 이산의 비운 앞에 이태경은 통탄해 마지 않고, 부인 심씨는 이보다 정도가 훨씬 심하다. "젼싱의 무삼 원한으로 이싱의 나셔 이ᄃᆡ지 곤고혼고"(90쪽)하며 실성하기까지 한다. 남편이 타국에서 돌아오자 말자 자식이 또 타국에 나가는 판국이니, 운명치고는 너무나 기구하다. 동아시아의 전란은 이태경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엄청난 고난을강요하고 있다.

가족 이산의 고난은 예기치 않게 다섯 아들[6]의 상봉으로 해결된다. 이연이 명에 들어가니 이복동생인 이능과 이준이 찾아오고, 전장으로 나아가니 가달의 이복동생인 쌍둥이가 찾아온다. 생면부지의 형제들이 모였으니 누구가 형이고 누구가 동생인지 분간이 필요하다. 이연이 맏이고 그 다음은 가달의 쌍둥이이고 또 그 다음은 명의 이능과 이준이다. 오형제가 서로 순서를 가린 다음 "풍악을 가초와 밤이 맛도록 우ᄋᆡ"(99쪽)를 나누는데, 전장은 피를 흘리는 곳이 아니라 형제가 상봉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곳으로 바뀌었다. 彼我 間에 최고 장수가 형제관계이니 사생을 결단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7]. 密計에 따라 朝明聯合軍이 승리하는 것으로 재빨리 종결짓고, 가족의 안부를 캐묻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다. 가달의 형제가 안부 편지를 전하고 명의 한소저가 안부 편지를 전하니, 이태경은 새롭게 다섯 아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또한 가연을 맺었던 여인들의 소식도 접하게 된다. 조선, 명, 가달이 벌이는 국제적 전란은 한 가족의 존재를 확인하고 결합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지금까지 네 차례나 거듭된 고난의 발생요인과 해소요인을 각기 살폈으니, 이제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보기로 한다. 제1차 고난은 지독한 궁핍 때문에 발생하여 심씨의 효성으로 인해 해소되고, 제2차 고난은 김광녹과 정

6) 필사본은 어느 이본에서나 다섯 아들이지만, 활자본에서는 네 명의 자식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7) 가달 장수의 생각이 어떤지를 보자.
"아무리 젼장인들 형졔 간의 ᄊᆞᆺ호리가 소졔 역시 왕명을 바다 왓시니 거직 싱ᄆᆡ도 업시 도라가면 이난 군부랄 쇠기미니 오날날 각각 신칙ᄒᆞ야 활촉을 ᄉᆡᆫ고 ᄊᆞᆺ흡 ᄒᆞᆺ이다" (100쪽)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상서 때문에 발생하여 정소저의 애정으로 인해 해소되고, 제3차 고난은 한대장 때문에 발생하여 한소저의 애정으로 인해 해소되고, 제4차 고난은 동아시아의 전란 때문에 발생하여 그 자식들의 상봉으로 인해 해소된다. 이렇게 보면 고난과 그 해소 과정이 네 차례나 이어지는 것이 이태경전의 구성임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나 이로써 구성의 특징이 모두 드러난 것은 아니다. 고난의 발생요인으로는 지독한 궁핍, 김광녹과 정상서, 한대장, 동아시아의 전란이고, 그 해소요인으로는 심씨의 효성, 정소저의 애정, 한소저의 애정, 다섯 아들의 상봉인데, 발생요인과 해소요인의 성격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다음 고난과 그 해소 과정을 살펴야 구성의 특징이 모두 드러날 것으로 본다. 논의의 편의상 고난의 발생요인과 그 해소요인을 도표로 나타낸다.

	제1차 고난	제2차 고난	제3차 고난	제4차 고난
발생요인	지독한 궁핍	김광녹과 정상서	한대장	동아시아의 전란
해소요인	심씨의 효성	정소저의 애정	한소저의 애정	다섯 아들의 상봉

먼저 발생요인을 보자. 발생요인에 속하는 각각의 사항은 얼핏 보면 전혀 무관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궁핍의 경우 잡일을 해도 끼니 잇기가 어렵고, 모친이 기세해도 초종치례를 하지 못하고, 돈 몇 푼에 종이 되기를 자청할 정도이니 궁핍은 개인적 질곡이 아닌 사회적 질곡이라 해야 맞다. 김광녹과 정상서의 경우 이태경에게 높은 벼슬을 주겠다고 해놓고 한결같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인재를 활용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인재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데려가므로, 국제간의 견제정책이 여간 첨예하지 않다. 한대장의 경우 은혜를 갚는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은인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하고 억류하려고만 든다.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분명치는 않으나 조선의 인재를 묶어두려는 김광녹, 정상서의 횡포와 관련이 있다. 동아시아 전란의 경우 국제 간의 견제정책이 첨예하게 맞서다 마침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면 고난의 발생요인은 사회문제, 국제문제와 같은 구조적 차원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음으로 해소요인을 보자. 해소요인에 속하는 각각의 사항 또한 얼핏 보면 전혀 무관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심씨의 경우 시모의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오대감을 찾아가 종살이를 자청했다. 가정의 문제를 손수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떠맡고 종살이의 고통을 감내하므로 효부 중의 효부이다. 정소저의 경우 부친 몰래 이태경과 가연을 맺었기에 野合의 성격이 짙으나 낭군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느 부인 이상이다. 낭군이 고국에 돌아가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 부친 몰래 도망가게 한다. 한소저의 경우 또한 이와 마찬가지이다. 가정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만 고국을 향한 낭군의 마음이 절실함을 알고 부친 몰래 도망가게 한다. 이러고 보면 이태경이 고국에 돌아온 것은 정소저와 한소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 다섯 아들의 경우,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던 바인데, 이들이 서로 만나 혈육임을 확인하고 부친에게 안부를 전해오니 더 이상의 기쁨이 없다. 고난의 해소요인은 구조적 차원이 아니라 가족 단위의 개인적 차원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고난의 발생요인은 구조적 차원이고 그 해소요인은 개인적 차원임이 드러났는데, 구조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정리하기로 하자. 고난의 발생양상과 해소양상이 한 단위로 묶여 거듭 이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구조적 차원의 문제가 개인적 차원의 노력으로 해소되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이다. 구조적 차원의 문제가 단순하지 않지만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말미에 배치됨으로써, 고난의 해소가 최종의 목표로 떠오른다. 이에 맞추어 이태경의 처지를 설명한다면 어떤 고난을 겪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세 아내와 다섯 명의 자식을 거느리게 되었으니, 남아로써 다복하기가 비길 데 없다는 지적이 가능해진다. 고난이 거듭되는 것은 인간의 삶에 굴곡이 많기 때문이고, 고난이 해소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의외의 행운이 도래하기 때문이다. 이태경전은 인간사에 있어서 의외의 행운을 강조하고,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이더라도 낙망해서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3. 三國에 걸친 空間擴大와 主人公의 삶

이태경은 조선, 명, 가달 삼국의 여러 공간에 머무른다. 국외만 하더라도 명의 김광녹집, 가달의 정상서집, 명의 한대장집이니, 세 곳이나 된다. 타국의 여러 공간을 거치는 것은 공간 이동이 순전히 타의로 이루어진 탓이다. 이태경이 누차의 고난을 겪되 동시에 의외의 행운을 맞이한 것은 앞에서 살핀 바 있는데, 공간 이동을 할 때 이태경의 태도나 의지는 어떠했는지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가 궁금해진다. 공간이 제시되는 양상과 이에 대한 주인공의 반응을 중점적으로 따지기로 한다.

* 조선을 떠나기 직전

고국 산쳔은 ᄇᆡ루의 눈물이요 타국 ᄒᆡᆼ중은 안젼의 수심이라 두만강 일ᄃᆡ수난 원셩이 용열ᄒᆞ고 황ᄉᆞ젹 칠ᄇᆡᆨ 이ᄂᆞᆫ 갈 길이 충망ᄒᆞ고 일모도궁ᄒᆞ니 인간이 가련ᄒᆞ다(47쪽)

* 명에 들어선 이후

주란 화각이 반공의 소소나고 쳡ᄉᆞ칭현은 노상의 다다르니 물식은 변화ᄒᆞ고 산수ᄂᆞᆫ 가려ᄒᆞ되 일분도 지경할 ᄲᅳ지 업고 한상의 소각셩과 한쳔의 외기려기난 고국 수심 지여니니 엇지 신셰 가련치 안이ᄒᆞ리요(47--48쪽)

* 가달에 들어선 이후

관ᄉᆞᆫ은 쳔쳡이요 고국은 말 이로다 기구한 산쳔은 안젼의 벼려잇고 한 변 한강 ᄒᆡ난 눈물을 지여니고 셕ᄉᆞ 갈니비ᄂᆞᆫ 비회을 자ᄉᆞ니고 화초 중 뒤견ᄉᆡ난 졔 목의 피을 니고 이 혐악ᄒᆞᆫ 산쳔의 날고 기면 가련이와 아모리 고국 ᄉᆡᆼ각 간졀ᄒᆞ야 ᄇᆞ리고 도라본들 갈 길이 망연ᄒᆞ다 좌우을 둘너보니 ᄇᆡᆨ두봉 노푼 봉의 구름이 쳡쳡ᄒᆞ고 화ᄃᆞ기셤 깁푼 골ᄋᆡ 안기 자옥ᄒᆞ니 문안이 어ᄃᆡᆫ고 칭칭ᄒᆞᆫ 셕벽은 만학쳔봉을 눌너 잇고 쳡쳡한 산노을 구비구비 도라들졔 무심 과긱도 비회을 이기지 못ᄒᆞ거든 하물며 할임이야 심중을 젼ᄒᆞ리요 심즁의 만단수심 셕ᄉᆞᆫ의 구름 되야 봉봉이 펴여나고 안즁의 찬 눈물 역상의 폭포되야 줄줄이 흘너가니 아무리 실허한들 농중의 가친 ᄉᆡ가 나라갈 길 젼이 업니(51--53쪽)

* 다시 명에 돌아온 이후

여려 날만ᄋᆡ ᄃᆡ국지경을 다다르니 노젼의 한 사람이 비단 ᄎᆡᆯ역의 산영망ᄐᆡ을 지고 길가의 업ᄃᆡ졌거날 할임이 말계 나려보니 기한의 죽은 덧ᄒᆞ되 가심 의 미미ᄒᆞᆫ 숨질이 잇거날 걸낭의 약을 가라 입에 드루니 이윽고 졍신얼 진졍ᄒᆞ거날(71쪽)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 다시 조선에 돌아온 이후

ᄉᆞᆺ가지의 우난 ᄉᆡ난 도라오난 사람 보고 조롱ᄒᆞ고 녹수의 원앙 ᄯᅡᆨ을 지여 (--)ᄒᆞ난지라 이러구로 경셩의 다다르니 의관은 옛 비치요 인물은 ᄉᆡ 비치라 장안 ᄃᆡ로상의 두류 거려 옛집을 ᄎᆞᄌᆞ가니(79쪽)

이태경의 路程을 공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공간을 다룬 어느 대목에서나 이태경의 시선보다는 서술자의 시선이 주로 나타난다. 서술자가 이태경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보고 있기에 서술자의 시선은 곧 이태경의 심중을 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서술자가 상당히 感傷的이고 너무 들떠 있는 탓으로 景物이 이떤지는 잘 포착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서술자와 이태경과의 거리를 감안해 볼 때 이태경이 고국을 떠난 슬픔으로 인해 감정의 동요를 심하게 겪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경물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공간을 이동할 때마다 경물이 다르고 감정의 波高도 다른데, 그 사이로 언뜻언뜻 眞景이 비치기도 한다. 이를 찾아내고 조합한다면 공간의 성격과 이태경의 반응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태경은 두만강 가에 서서 고국 산천을 돌아본다. 명에 들어서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산천이기에 사뭇 비감스럽다. 이래서 두만강의 물소리도 '원성이 용열' 하다. '일모도궁' 이라는 것도 실제로 해가 지고 길이 막혔다기보다는 떠나는 자의 절망적 심회를 표현한 말로 여겨진다. 중국에 들어서서는 이보다 심한 상태로 떨어진다. 정자, 물, 산이 아름답기 그지없다고 해놓고 자신을 일개 '외기려기' 라 했으니, 자연 경물과 자아의 심적 거리가 너무 멀다. 자연 경물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자아의 거리감은 더욱 심해질 듯도 하다. 이런 상태이니 명에 오래 머무른다면 "싱각이 한이 되고 수심이 병이 되"(48쪽)는 지경은 피할 수 없다. 이태경을 중병 들게 한 加害者는 김광녹으로 보이지만, 조선의 인재를 묶어두고자 하는 명의 의도[8]를 감안할 때 명이라는 공간이 궁극적인 가해자이다.

8) 김광녹은 명의 사신이고 천자의 명을 집행하는 자이다. 이런 자가 단지 인재라는 이유만으로 이태경을 명에 데리고 가서, 벼슬도 시키지 않고 그렇다고 보내주지도 않는 것은 명이 조선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호종단이나 이여송의 斷穴說話에서도 잘 드러나는 바이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명의 공간은 단순히 존재하는 地境이 아닌, 명의 의도를 내포한 정치적 외교적 地境이다[9]. 이런 공간은 이태경이 나약할수록 더욱 가혹한 횡포를 부린다. 마음대로 나다니지 못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달로 넘겨버리려 한다. 이태경이 이토록 곤욕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조선의 인재를 돌려보내지 않으려는 명의 정책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이태경이 명에 온 이후 줄곧 고국 생각에 잠심해 있으니 기회만 생기면 돌아가려 할 것이다. 아예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먼 곳으로 보내 버릴 필요가 있는데, 가달이 바로 그런 곳이다. 예로부터 중국은 이민족의 발호를 막기 위해 나라의 동량을 인질로 데려오거나 문화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자 한 바[10], 이태경이 당하는 고초는 첫째번에 해당된다. 여기서 이태경의 태도가 주목되는데, 조선에 돌려보내지는 못할 망정 그대로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가달로 가지 않으려는 반발이기에 주목되나, 반발치고는 너무나 미약하다. 외교정책을 집행하는 김광녹이 이런 반발에 귀를 귀울일 리가 없다. 보낼 마음만 더욱 굳힐 뿐이다.

가달국에 들어가는 이태경의 마음은 무척이나 상해 있다. 공간을 다룬 대목 가운데 이 대목이 가장 장황한 편인데, 상심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산천도 단순한 산천이 아닌 '기구한 산천'이고, 새도 단순한 새가 아닌 피를 토해내는 '뒤견시'이다. 이렇게 상심해 있으니, 주변 경물이 눈에 들어올 리 없고 어쩌다 보이는 경물은 낯선 모습으로 이태경을 압도한다. '빅두봉 노픈 봉의 구름이 쳡쳡ᄒᆞ고 화ᄃᆞ기셤 깁픈 골이 안기 자옥ᄒᆞ니 문안이 어ᄃᆡ고'라 하는 언급에서, 낯선 경물에 압도된 상태가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럴수록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일이 거듭된다. 가달의 정상서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마자 대뜸 어느 곳집에 감금해 버렸기 때문이다. 정상서 스스로 왜 감금하는지에 대한 해명이 없고, 이태경도 그 이유를 따지려 하지 않는다. 명에서의 경우처럼 궁극적인 가해자는 가달의 공간이라 하겠는데, 정상서나 이태경이나 이 점을 너무나

9) 공간의 의미를 '특정인물의 위치나 대상이 놓여 있는 자리' 정도로 규정하고 말 수가 없다. 이태경이 왜 명으로 끌려가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자면 공간 자체가 지닌 속성을 상황에 따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공간 또한 인물과 대응하는 하나의 실체이다.

10) 高柄翊,『東亞交涉史의 硏究』,(서울大出版部,1970), 179쪽 참고.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잘 알고 있기에 해명할 필요도 따질 필요도 없었던 것 같다.

가달에서 탈출하여 다시 명으로 들어서는 대목에서는 주변 경물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다. 탈출에 온통 신경을 몰두하다 보니 미처 주변 경물을 바라볼 여유가 없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명에 끌려갈 때와 가달로 끌려갈 때와는 다른 면이 발견된다. 길 옆에 사람이 엎어진 것을 발견하고 말에서 내려 구원한다는 점에서 한층 여유가 있어 보인다. 마냥 수심에만 빠져 있었다면 남을 도울 여유가 없었을 터인데, 고국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마음을 여유롭게 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공간과 이태경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태경의 심신이 여유롭다고 해서 공간에 맞설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이미 살핀 바와 같이 명이나 가달의 공간이 조선의 인재를 묶어두고자 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의지로는 맞서기가 어려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태경에 의해 목숨을 건진 한대장은 도리어 이태경을 묶어두고 조선에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 이전에 비해 한결 여유를 찾은 이태경이지만 교묘한 술책을 구사하는 한대장에게 꼼짝없이 억류당하고 만다.

한대장이 이태경을 억류하는 것은 세 단계로 되어 있다. 첫째번에는 자기 집이 가까우니 잠깐 유했다 가라고 한다. 갈 길이 바쁘기는 하나 은공을 갚겠다고 간청하는 호의를 무시하기 어려워 따라간다. 그런데 가깝다던 한대장의 집은 "수십 이"(72쪽)나 떨어져 있었고 조선으로 가는 길과는 다른 방향이다.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문제는 둘째번 단계이다. 집에 도착하자 마자 객실에 들어가게 한 뒤 사람들을 풀어 도망하지 못하게 한다. 잠깐 유했다가 가라는 말은 자기집에 억류하려는 술책에 다름 아니다. 셋째번 단계는 자기 여식과 결혼시키려 한다. 사람들을 풀어 감금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사위로 삼아 영원히 억류하기 위해서이다. "할 길 업셔 ᄐᆡ길"(74쪽)하는 것으로 보아, 이태경이 달리 저항할 방도가 없는 듯하다. 한대장의 '억지 사위삼기'는 은공을 갚으려는 자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명의 정책을 집행하는 代理者에 가깝다. 김광녹이나 정상서에게 잡혀 있을 때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공간에 억눌린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명에서 탈출하여 다시 조선으로 들어서는 대목에서는 심신이 아주 화락하게 나타난다. 'ᄉᆞᆺ가지의 우난 시난 도라오난 사람 보고 조롱ᄒᆞ고 녹수의 원앙 ᄊᆞᆨ을 지여' 노닌다는 표현은 심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준다. 타국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생활을 청산하고 장장 십구 년[11]만에 돌아왔으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 의해 구속을 받을 필요도 없다. 게다가 꽃가지에 새가 울고 원앙이 짝을 짓는 계절이다. 이른바 春三月 好時節이라 해도 좋겠는데, 고국에 돌아올 때의 계절이 춘삼월 호시절이라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 명에서 가달로 갈수록 주변경물이 침침하고 어두운 색채였음에 비추어 볼 때 다시 돌아온 고국의 경물은 온통 밝고 환한 색채이다. 우연히 춘삼월이 도래했다기보다 이태경의 화락한 심신을 표현하기 위해 춘삼월이 동원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여기서는 공간과의 대립도 없고 오직 同化만이 있을 따름이다.

이태경과 공간과의 관계를 살펴보니, 명과 가달의 공간은 이태경을 일방적으로 억류하려고 한다. 명에서는 김광녹과 한대장이 서로 관련이 없고 억류하는 명분도 각기 다르지만, 이태경을 묶어두고자 하는 점은 일치된다. 가달은 명과 그다지 원만하지 못한 듯이 보인다.[12] 그런데도 김광녹이 이태경을 가달로 보내고 가달의 정상서는 이태경을 곳집에 가두었으니, 이태경의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명과 가달이 공동보조를 취했다. 어느 나라 가릴 것 없이 이태경을 억류함으로써 조선의 발호를 꺾어보려는 정책은 동일한 셈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명의 정책이다. 주지하다시피 명은 조선과 돈독한 우의를 나누는 나라인데, 겉과는 달리 실제로는 조선을 견제하는 나라임이 밝혀진다. 이태경과 공간의 관계는 명과 가달의 동향을 전하고, 국제 간에 잠복한 문제를 예리하게 들추어내는 기능을 한다. 그렇다면 이태경이 명과 가달의 공간에 언제나 억눌리기만 했던가? 이태경이 가달의 정소저와 명의 한소저와 같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 면이 발견되므로, 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가달에서 정소저와 같이 있었던 공간을 보자. 정소저가 이태경을 침소로 끌어들였으니, 같이 있었던 공간은 바로 방이다. 방에서 이들은 악기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다. 이태경의 곡 중 인상적인 부분은 "미인의 거문고의 원긱이 화답ᄒᆞ고 원긱이 퉁소 소릐 미인이 화답ᄒᆞ니 그 안이 연

11) 김동욱 교수 소장본, 박순호 교수 소장본, 활자본에서는 이십팔 년이라 했다.
12) 김광녹과 정상서의 교섭을 놓고 보면 가달과 명의 관계가 우호적이라 할 여지도 있으나, "**촉**마 가달이 강셩ᄒᆞ야 관동 칠ᄇᆡᆨ여 쥬을 쳐 항복밧고 물미듯 드여오니" (86쪽)라는 언급을 감안하면 그렇게 볼 수 없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분인가"(60쪽)하는 것이고, 정소저의 곡 중 인상적인 부분은 "고학이 싹을 일코 원망ᄒᆞᆫ 듯ᄒᆞ더니 쏫밧겨 봉황이 나라드니"(61쪽)하는 것이다. 이태경은 정소저를 '미인'이라 하고 정소저는 이태경을 '봉황'이라 했다. 미인과 봉황이기 이전에는 이태경은 '원객'이고 정소저는 '고학'이었는데, 양자가 만나면서부터 미인과 봉황으로 바뀐 것이다. 비록 침실로나 쓰이는 작은 방일지언정 이태경이 주체가 되어 밤새도록 노래 부르고 애정을 나누었으니, 이 공간이야말로 이태경의 수중에 들어 있다. 정상서의 집, 더 나아가서는 가달이라는 전체 공간에 비하면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이태경이 공간을 自己化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음으로 명에서 한소저와 같이 있었던 공간을 보자. 한소저와 같이 있었던 공간이 한대장의 집 가운데 어디인지가 분명하지 않지만 공식적으로 부부관계를 맺고 살았음을 감안하면, 한두 칸 정도의 방일 것이다. 이태경과 한소저의 관계는 아주 돈독하다. "은근한 졍은 타인 부부와 십 비나 다르"(74쪽)다는 언급이 그 증거일 수 있다. 이 짧막한 언급은 여러가지 추측을 가능케 한다. 가달의 정소저와 있을 때처럼 이태경은 퉁소를 불고 한소저는 거문고를 뜯었을지 모른다. 또한 길고 긴 사랑의 노래도 불렀을지도 모른다. 이런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삼 년 동안 고국을 잊고 살았고 두 명의 자식까지 낳을 수 있었던 것이다. 결혼 삼 년은 妻子와 동락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공간을 확보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큰 집에 부속된 한두 칸의 방이나마 이태경이 주체가 되어 산 이상, 이 공간이야말로 이태경의 수중에 들어 있다. 한대장의 집, 더 나아가서는 명이라는 전체 공간에 비하면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이태경이 또한 공간을 自己化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논의의 결과, 이태경이 명과 가달의 공간에 언제나 억눌리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김광녹, 정상서, 한대장에게 끌려가면서 한편으로 정소저와 한소저를 통해 작은 공간이나마 확보했던 바이다. 공간 확보는 억류자의 허점을 찌르는 효과가 있다. 정상서는 이태경을 곳집에 가두어놓고 안심했을 터이지만 정소저의 마음이 도둑맞는 줄을 몰랐고, 한대장은 딸과 결혼시켜 놓고 안심했을 터이지만 한소저의 마음이 도둑맞는 줄을 몰랐다. 이런 허점을 통해 이태경은 탈출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태경이 자기화한 공간은 전체 공간 속에서 어떤 의의를 지니는가? 전체 공간에 비해 형편없이 작은 것을 감안하면, 따질 것도 없이 뻔하다. 이태경이 확보한 공간은 탈출하기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에 적당한 공간이지 전체 공간에 대항할 만한 공간은 못 된다. 따라서 정상서와 한대장의 손아귀는 벗어났다 할지라도 조선의 인재를 억류하고자 하는 명이나 가달의 정책 자체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명이나 가달의 입장으로서는 다른 인물을 내세워 다시 이태경을 불러들일 수도 있다. 이것이 이태경의 짐이요, 조선의 짐이다.

그런데 작품에서는 이태경의 귀국을 끝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국제 간의 복잡한 문제가 마무리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더 다루지 않는가? 이태경과 그를 둘러싼 환경을 통해 이 문제를 짚어보기로 한다. 우선 이태경의 귀국 장면을 주목할 만하다. "할임이 왓단 말을 듯고 남북의 주류화각이 분분ᄒᆞ여 **쐬슐**이 자옥ᄒᆞ고 장안 노로 인민이 모로 리 업"(85쪽)고, 임금은 삼 삭이 지나기를 기다려 좌의정을 제수한다고 했다. 타국에 들어가서 갖은 곤욕을 겪었기에 이른바 '노로 인민'이 모여들고 임금이 위로한다고 보기에는 환대가 너무 지나치다. 마치 凱旋將軍을 맞이하듯 하는데, 이태경이 타국 공간을 완전히 압도하고 온 것 같이 비치게 한다. 여태까지 이태경이 타국 공간에 압도되는 양상과 그 와중에서 작은 공간을 확보하는 양상이 균형있게 제시되었던 점을 상기할 때, 개선장군인 양 비치는 것은 타국 공간에 압도된 양상을 감추고 타국 공간의 확보 양상을 부풀린 결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는 이태경의 아들 이연을 통해 더욱 고조된다.

> 천ᄌᆞ 청병장을 관동의 보ᄂᆡ시고 소식을 몰나 쥬야로 옥체 불안ᄒᆞ시더니— 쳡서을 보시고 용안을 반거하야 금신ᄎᆞ 들어 서안을 치며 가라ᄉᆞ되 ᄃᆡ국이 ᄆᆡ양 촉국 강포를 근심ᄒᆞ야 침식이 불안하더니 원수한 거렴의 삼국 명장을 거ᄂᆡ하야 화친 안이하여도 자연 화친ᄒᆞ고 ᄊᆞ호지 안이ᄒᆞ여도 자연 정벌이 되야신니 엇지 질겁지 안이ᄒᆞ리요 하시고 예관 경슌을 명ᄒᆞ야 교지을 가지고 속히 가 경동ᄃᆡ원슈을 위로ᄒᆞ라 ᄒᆞ시다(101--102쪽)

이연은 원병장으로 명에 가서 가달을 물리치고 천자에게 승전보를 보냈다. 이연이 가달을 물리쳤다고 해서 그 부친인 이태경보다 뛰어나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연의 行步는 이태경이 거쳐간 공간을 벗어나지 않았고, 전란의 발생은 오형제 상봉으로 이어지므로 궁극적으로 이연은 이태경이 만들어놓은 틀 속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이연의 공간 압도는 곧 이태경의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공간 압도라는 의의를 지닌다. 이미 타국 공간에 억눌린 자가 다시 타국 공간을 압도한다고 하려면 상당한 비약이 필요하다. 비약을 도모하는 데서 오는 무리를 피하기 위해 이연을 내세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천자가 '용안을 반거' 할 일이 아니다. 명이 조선에 원병군을 청했으니 조선은 명보다 우위에 있고, 조선이 가달의 대군을 물리쳤으니 조선은 가달보다 우위에 있다. 천자는 동아시아의 盟主가 사실은 조선으로 바뀌었음을 깨닫고 위기의식을 느껴야 맞다. 천자를 통해 조선이 명보다 우위에 선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부풀려도 너무 지나치게 부풀렸다.

동아시아의 전란 전까지만 해도 명의 요청에 따라 인재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던 것이 조선이었고, 겨우 작은 공간을 만들어 탈출하기에 급급했던 것이 이태경이었다. 열세에 있던 자가 전란을 계기로 갑자기 우위에 서도록 하자면, 그럴 만한 계기를 확실하게 조성해야 한다. 작품에서는 이런 계기를 제대로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 때마침 가달의 장수가 이태경의 아들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고도 공간을 압도했다는 것이 고작인데, 기이한 행운에 대한 설명일 수는 있어도 갑자기 우위에 선 조선 位相에 대한 설명일 수는 없다. 이것은 작자 의식과 관련이 있다. 작자가 우위에 선 조선 위상을 내세우기만 하고 그 연유를 들이대지 못한 것은 조선이 명이나 가달의 국력에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 같다. 결국 기이한 행운으로 국제 간의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간 셈인데, 조선에 대한 명이나 가달의 견제정책은 손상을 입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이태경전의 주제는 '고난에 빠진 주인공이 기이한 행운 얻어 잘 되기' 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태경전은 문제제기와 그 해결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현격하다. 문제제기는 사회적 궁핍과 국제 간의 견제정책과 같은 구조적 차원인 데 비해, 문제해결은 심씨의 효성, 정소저와 한소정의 애정, 다섯 아들의 상봉이라는 개인적 차원이기 때문이다. 문제제기와 그 해결 사이의 거리는 이태경전이 理想主義에 경도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상주의라도 그 정도가 문제이다. 이상주의의 본령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는 것인데, 조선이 명이나 가달의 국력에 대응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에 겉으로 드러난 낙관적 전망 이면에 비관적 전망이 짙게 깔려 있다. 이상주의를 온전히 구현한 작품이라 하기 어렵게 되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4. 空間擴大의 小說史的 意義

이태경전의 최대 특징은 공간이 삼국에 걸쳐 있다는 점인데, 공간확대의 방법을 따져보기로 한다. 그러자면 이태경전의 작자가 어떤 면을 수용하고 어떤 면을 창안했는지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 이런 작업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민담의 '아들 많이 둘 사람 잘 되어 돌아오기' 유형과 이해룡전이다. 이태경전은 전체적인 내용에서 민담의 '아들 많이 둘 사람 잘 되어 돌아오기' 유형과 흡사하고 부분적인 내용에서 이해룡전과 흡사하므로, 이들을 모태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민담과 이해룡전을 검토하면 공간확대의 방법 및 의의가 드러날 것으로 본다.

* 사람은 사주팔자 속으로 산다.

한 사람이 조실부모하고 부인과 아주 빈한하게 살았다. 결혼한지 일년 이후부터 계속 아들을 낳아 아홉이나 되었는데, 궁핍한 살림에 자식만 자꾸 생기니 살 길이 막연해졌다. 생각하다 못해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보았다. 점쟁이로부터 아들 십팔 명을 낳을 사주라는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자식을 낳지 않기 위해 집을 떠나 무작정 멀리 간다. 한 곳에서 사람을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흔쾌히 자원하니, 모집자는 이 사람을 배에 태우고 어떤 섬으로 데리고 갔다. 그 섬에는 부인 아홉 명을 거느린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부인 모두와 동침하게 했다. 세월이 흘러 부인이 전부 잉태하니, 노인이 이 사람을 죽이려 했고 이 사람은 부인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탈출했다. 탈출할 때 부인들이 다투어 금덩어리를 주었기에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다. 본집으로 돌아오니 허름하던 집은 고대광실로 변해 있었고, 진위 여부를 시험받은 뒤 가정에 복귀했다. 얼마 뒤 섬의 노인이 죽자 부인 아홉과 자식 아홉이 한꺼번에 이 사람을 찾아왔다.(『韓國口碑文學大系』4-2,97 — 108쪽)

'아들 많이 둘 사람 잘 되어 돌아오기' 유형에 속하는 설화는 『韓國口碑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文學大系』에서만 하더라도 30편이 넘는데[13], 그 중에서 한 편을 택해 줄거리를 요약해 보았다. 各篇에 따라 부인이나 아들의 수에서 출입이 있기는 하나, 전체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는 편이다. 즉 어떤 사람이 가난한데도 자식이 많아, 더 이상 자식을 낳지 않기 위해 먼 곳으로 갔다가 결국 점괘대로 자식을 낳고,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긴 다음 부자가 되어 돌아온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다. 설화의 내용을 간추리면 여섯 항목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1)지독하게 가난하고, 2)자식이 많고, 3)먼 곳으로 떠나고, 4)여러 명의 여인을 만나 자식을 낳고, 5)우여곡절 끝에 본가에 돌아오고, 6)모든 妻子와 동락한다는 것이라 하겠는데, 지독하게 가난하다거나 주인공이 먼 곳으로 갔다거나 많은 처자를 거느렸다거나 하는 항목은 이태경전의 내용과 동일하다. 더욱이 고난이 뜻밖의 행운으로 해소된다는 점에서 이태경전의 얼개와 너무나 비슷하다. 설화의 내용을 변개시켜 만든 것이 이태경전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설화가 소설로 전환되면서 일어난 변개 중 3)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설화에서 먼 곳을 가는 이유가 더 이상 자식을 낳지 않기 위함이던 것이 소설에서는 먼 곳을 가는 이유가 명과 가달의 외교정책 때문이라는 쪽으로 바뀌었다. 주인공이 떠나는 이유가 설화에서는 개인적 차원이지만 소설에서는 구조적 차원이니, 소설에 이르러 문제가 복잡해졌다. 여기서 소설의 작자가 개인적 차원에 입각한 설화에 불만을 느끼고 그 얼개는 수용하되 전체 내용은 구조적 차원으로 전환시키려 했다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변개의 방향이 이렇다면 몇 가지 항목이 불가피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우선 먼 곳에 가기 전에 이미 자식을 많이 낳았다는 2)는 쓸모가 없어졌다. 설화에서 아홉 자식이 소설에서는 유복자로 처리된 것은 이런 변개 방향에 부응한 결과이다. 또한 공간 이동의 양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설화에서 주인공이 공간을 한 번 이동함에 비해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공간을 여러 번 이동하는데, 공간 이동을 여러 번 해야 국제 문제를 들추어내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소설을 구조적 차원에서 다루자면 궁핍문제도 재조정되어야 한다. 1)이 바로 그 대상이다. 설화에서는 주인공이 궁핍하다고 했으나 그 신분을 너

13)『韓國口碑文學大系』,別冊附錄(1)(韓國精神文化硏究院,1989), 628--629쪽 참고.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무 천하게 설정했으므로 궁핍의 의미가 그다지 부각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신분이 천하면 궁핍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설화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구조적 차원으로 단계를 높일 수 없으니, 변개가 불가피하다. 주인공의 신분을 높이고 지독한 궁핍에 시달린다고 하면 궁핍의 원인을 사회구조의 차원에서 바라볼 길이 열린다. 그런데 설화에서 개인적 차원이던 것을 소설에서 사회구조적 차원으로 단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윤색이 요구된다. 새로운 창안은 시간과 기술을 요할 터인 바, 이미 인기를 얻고 있는 작품을 이용하는 것이 손쉽다. 이태경전에 이해룡전이 수용된 까닭을 바로 이런데서 찾을 수 있다. 선행 연구[14]에서 밝혀졌듯이 이해룡전은 빈곤을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다루고 있으므로, 수용하기가 아주 용이하다. 이해룡전이 어떤 양상으로 수용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그 내용을 요약해 본다. 자료는 판각본[15]으로 한다.

> 영종대왕시절 이경회는 누대 명문거족으로 부유하게 살았는데, 다만 자식이 없어 늘 근심했다. 부인 장씨가 자식을 점지해 달라고 조상신에게 기원하다가 뜰에서 잠깐 졸던 중, 선관이 현몽하여 동해 용왕의 아들을 점지한다. 이로부터 장씨가 아기를 낳았고, 이름을 해룡이라 했다. 이해룡은 매우 영민하여 장래가 촉망되었으나, 부친 棄世 이후 너무나 가세가 기운 탓에 출세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럭저럭 결혼까지 했으나, 끼니 이을 양식도 제대로 없어 이해룡은 나무하고 부인 심씨는 밥을 빌어 노모를 봉양하기에 이르렀다. 노모가 득병하여 기세하자 장례 치를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안절부절하다가 오홍 대감집에 부부 모두 종으로 팔린다. 양식을 구하러 갔던 노복이 돌아와서 사정을 알고는, 통곡하며 부인을 만나러 간다. 부인과 노복이 만나 기구한 운명을 통탄할 때, 이 광경을 목격한 老婢가 오대감에게 자초지종을 말한다. 이후 오대감은 이해룡과 父子의 義를 맺고 지극한 효성을 나라에 아뢴다. 과거가 열리자 장원급제하고, 오대감 부부와 행복하게 잘 살았다.

14) 金大珉,李海龍傳 硏究,『국어국문학』97,(국어국문학회,1987)
李鉉國,李海龍傳에 나타난 貧困의 문제,『문학과 언어』9,(문학과 언어연구회,1988)
15) 서강대학교 도서관 소장본,40쪽.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이해룡전의 내용은 이태경전의 국내 대목과 상당히 비슷하다[16]. 양 작품이 너무나 일치되기에, 비슷하기보다는 같다는 편이 적절하다. 물론 이태경전이 이해룡전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 이해룡전에서는 주인공의 출생 내력이 비교적 장황한 데 비해, 이태경전에는 주인공의 출생 내력에 대한 대목이 아주 소략하다. 그 이외에도 이태경 부부 사이의 대화라든가 상황 설명에 대한 서술이 적지 않게 생략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전체 내용이 바뀌지는 않았으므로 '같다'는 언급을 수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태경전이 이해룡전을 축약해서 수용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태경전으로 보면 이해룡전은 전체 내용 중 한 부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수용하면 전체의 균형이 깨어지고 말 터이다. 그래서 서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용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이해룡전은 사회구조의 문제가 개인의 효행으로 극복되는 소설이고, 이태경전에 수용된 대목 또한 어김없이 동일하다.

이태경전의 작자는 민담의 '아들 많이 둘 사람 잘 되어 돌아오기' 유형을 수용하는 한편, 명과 가달의 외교정책을 조선과 연관시키고 이해룡전까지 수용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에서 구조적 차원으로 바꾸어 놓았다. 민담의 유형구조를 토대로 하되 국제문제와 국내의 사회문제를 끌어들인 것은 受容과 創造를 동시에 도모한 것이어서, 창작방법의 발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면은 분명히 이태경전이 지닌 의의라고 하겠으나, 무조건 의의만을 강조하고 말 일이 아니다. 이태경전이 설화적 성격을 어느 정도 벗어났느냐가 문제이고, 이에 따라 의의가 매겨져야 한다. 설화에는 '사람은 사주팔자 속으로 산다'라는 제목에서 암시하듯 사주팔자, 즉 運命論이 짙게 깔려 있다. 자식이 많아 먼 길을 떠난 자가 결국 점괘에 나타난 대로 자식을 가지게 되었으니, 사람은 제 아무리 애써도 타고난 운명은 거스를 수 없다. 사람은 운명을 개척한다기보다는 맞이한다는 말이 이 경우에 잘 어울린다. 이태경전이 설화적 성격을 어느 정도 벗어났느냐의 문제는 이태경전이 설화의 운명론을 거부했느냐 수용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16) 이해룡전과 이태경전의 전반부가 흡사하기 때문에 이태경전을 이해룡전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필자 소장본 '진ᄉᆞ 이히용젼'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요점을 먼저 말한다면 주인공인 이태경은 운명론에 경도되어 있는 인물이다. 명과 가달에 끌려갈 때 "천지도 무심ᄒᆞ고 일월도 무광ᄒᆞ고 귀신도 무경하다"(46쪽)고 하거나 "종적이 돈절하고 혼빅이 가련ᄒᆞ"(50쪽)다거나 하면서 자탄만 했을 뿐이지, 거부하지 않았다. 자신의 행로를 운명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다면 운명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거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17]. 운명론은 주변환경에 대한 눈을 멀게 하고 自我를 왜소하게 만든다. 이태경이 명이나 가달의 공간을 보면서 고국 산천과 그저 다를 따름이지 공간의 정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를 자각하지 못한 것은 이런 까닭이다. 주인공이 운명론에 빠져 있고 그 결과 자아가 왜소하게 나타나므로, 이태경전은 설화의 운명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겠다. 이태경전이 설화의 내용을 이모저모 변개했지만 정작 설화의 운명론은 변개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여기서 공간과 자아가 어떤 관계에 놓이는가 하는 設問이 가능해진다. 이태경전에서는 공간확대가 자아를 위축시키는 기능을 했는데, 공간이 확대된다고 해서 자아가 위축된다는 논리는 일반화될 수 없다. 공간확대와 더불어 자아가 확대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합당한 예가 燕巖의 『熱河日記』 山莊雜記에 실린 "夜出古北口記"이다. 연암은 古北口의 만리장성을 보고 거대한 공간에 압도당하고 마는데, 일시에 확대된 공간에 비해 자아가 너무 왜소함을 깨닫는다. 그러나 자아는 왜소한 경지에 침몰하지 않으며, 초극할 수 있는 계기를 곧 바로 만든다. 고북구에서 벌어졌던 전쟁을 상고하고 주변환경을 세밀히 묘파한 뒤, 개연한 흥취에 도취한 것은 공간 초극의 상태를 나타낸다[18]. 공간확대에 위축되지 않고 본래 공간이 지니고 있던 속성을 냉철하게 응시함으로써 자아의 正體性을 확보했다 하겠는데, 이 점은 이태경전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왜 이태경전의 자아가 "夜出古北口記"의 자아와는 달리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는가? 이것은 창작방법의 한계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누차 언급했듯이 이태경전이 조선과 중국을 공간으로 삼던 종전 소설의 관행을 뛰어

17) 운명론에 경도된 것은 여타 이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본에 따라 과다의 차이가 있기는 해도 이태경이 타국에 떠나는 것을 스스로 팔자소관이라고 한다.

18) 李東歡,"夜出古北口記"에 있어서의 燕巖의 自我,『韓國漢文學硏究』8,(韓國漢文學會, 1985), 314--316쪽 참고.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넘어 삼국으로 공간을 확대했다면, 공간확대와 더불어 주인공의 대응도 이에 걸맞게 조정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야출고북구기"에 나타난 자아처럼 공간을 곧 바로 응시하고 초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태경전에서는 자아의 대응이 너무나 구태의연하다. 공간에 끌려드는 것을 운명으로 치부하는 탓에 공간을 제대로 응시할 여유를 지니지 못한 것이다. 자아는 공간을 이동할수록 왜소해지기만 하므로, 의외의 행운만이 이런 자아를 구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태경전의 작자는 공간을 확대시키기만 했을 뿐이지 공간에 대응하는 주인공의 자아는 고려하지 않았다. 인물과 공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태경전의 의의와 한계는 이로써 분명해졌다. 종전까지 觀念的으로 인식되던 공간을 實際的인 공간으로 전환시킨 것은 의의라고 하겠으나, 설화에 내재된 운명론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자아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한계라 하겠다. 이태경전의 문제는 이태경전만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소설사가 안고 있는 문제이다. 종전 관행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무엇이 문제되는가를 내보였다는 점에서 이태경전은 소설사에 중대한 과제를 던졌다는 편이 더 적절할 터이다. 이태경전과 같이 공간확대의 양상을 보이는 소설로는 남윤전, 이한림전 등이 있는데, 이런 작품을 전반적으로 살피면서 공간확대의 양상, 인물과 공간의 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필자가 앞으로 해결할 숙제로 남겨둔다.

5. 結 論

학계 일각에서는 20세기 전후의 고소설이 구태의연하게 기존의 유형구조만을 답습하거나 변화를 꾀하더라도 통속적인 방향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태경전은 바로 이런 경향을 불식시킬 수 있는 작품이다. 기존 소설의 유형구조를 수용하는 한편 사회문제와 국제문제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창조의 폭을 넓혔기에, 이태경전을 통해 20세기 고소설의 自己更新 樣相을 조망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이태경전이 수용과 창조를 어떤 각도에서 시도했으며, 창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는 무엇인지를 소설사의 맥락에서 짚어 보고자 했다. 논의한 바를 요약해서 제시하기로 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첫째, 주인공 이태경은 모두 네 차례의 고난을 당한다. 아내를 종으로 내어 보내고, 명에 인질로 끌려가고, 뒤이어 가달에 인질로 끌려가고, 아들을 전장으로 보내야 했다. 그렇다고 마냥 불행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예기치 않은 행운이 도래했고, 이로써 고난을 벗어날 수 있었다. 고난의 발생양상과 해소양상이 한 단위로 묶여 거듭 이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구조적 차원의 문제가 개인적 차원의 노력으로 해소되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이다. 구조적 차원의 문제가 단순하지 않지만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말미에 배치됨으로써, 고난의 해소가 최종의 목표로 떠오른다.

둘째, 명과 가달의 공간은 이태경을 일방적으로 억류하려고 한다. 김광녹, 한대장, 정상서가 제각기 명분을 내걸고 이태경을 억류하고자 하는데, 조선의 인재를 묶어두고자 하는 명과 가달의 의도를 감안할 때 명과 가달의 공간이 이태경을 억류한다고 하겠다. 이태경이 명과 가달의 공간에 언제나 억눌리기만 했던 것은 아니고, 정소저와 한소저를 통해 작은 공간이나마 확보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태경이 확보한 공간은 탈출하기에 적당한 공간이지 전체 공간에 대항할 만한 공간은 못 된다. 따라서 정상서와 한대장의 손아귀는 벗어났다 할지라도 조선의 인재를 억류하고자 하는 명이나 가달의 정책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셋째, 동아시아의 전란은 이태경에게 타국 공간보다 우위에 서게 하는 계기가 된다. 열세에 있던 자가 전란을 계기로 우위에 서도록 하자면 그럴 만한 계기를 조성해야 한다. 작품에서는 이렇지가 못하다. 때마침 가달의 장수가 이태경의 아들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고도 공간을 압도했다는 것이 고작인데, 기이한 행운에 대한 설명일 수는 있어도 갑자기 우위에 선 조선 位相에 대한 설명일 수는 없다. 이태경전은 문제 제기와 그 해결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현격하다. 이태경전이 理想主義에 경도되어 있다 하겠으나, 조선이 명이나 가달의 국력에 대응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비관적 전망이 짙게 깔린 왜곡된 이상주의라 하겠다.

넷째, 이태경전의 작자는 민담의 '아들 많이 둘 사람 잘 되어 돌아오기' 유형을 수용하는 한편, 명과 가달의 외교정책을 조선과 연관시키고 이해룡전까지 수용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에서 구조적 차원으로 바꾸어 놓았다. 민담의 유형구조를 토대로 하되 국제문제와 국내의 사회문제를 끌어들인 것은 受容과 創造를 동시에 도모한 것이어서, 창작방법의 발전이라 아니할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수 없다. 의의 못지 않게 한계도 크다. 이태경전의 작자는 공간을 확대시키기만 했을 뿐이지 공간에 대응하는 주인공의 자아는 고려하지 않았다. 설화에 내재된 운명론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자아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그 한계이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